

##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 용 훈<sup>1)</sup> 이 경 숙<sup>†</sup> 김 계 순<sup>2)</sup>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H 대학교와 수원시 다시서기 센터가 공동주최한 ‘어깨동무 인문학 과정’에 참여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노숙인의 우울은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불안은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노숙인의 우울,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 노숙 기간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셋째, 노숙의 원인으로 부모의 부재나 가정 내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두드러졌다. 노숙인의 우울감은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분되었고, 자기 지각에서는 패배감과 좌절감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기력함, 낮은 자기효능감이 나타났다. 대인관계에서는 가족과의 불화, 사회적 관계 적응의 어려움과 친밀한 관계에서의 회피를 보였다. 넷째, 노숙인은 모래놀이상자 표상에서 집에 대한 욕구, 고향에 대한 향수, 대인관계에서 오는 고립감을 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심리학적 연구가 드문 노숙인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특성을 탐색한 점에서 의의가 있고, 본 결과가 추후 노숙인의 심리적 상태 이해와 개입 방향 설정에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노숙인, 심리사회적 요인, 질적 인터뷰, 모래놀이상자 평가

1)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초빙강의 교원, E-mail: yonghun0313@hs.ac.kr

† 교신저자: 이경숙,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Tel : 031-370-0525, E-mail : debkslee@hs.ac.kr

2) 한신대학교 한신이동발달상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E-mail: sunshine714@hanmail.net

노숙은 인간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악의 환경일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취약성과 연관된 매우 위험한 삶의 장면에 속한다. 노숙인은 노숙 생활이 장기화 되면서 안정감, 예측 가능성, 통제력의 상실을 경험하고, 이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대처능력의 저하와 심리적 손상을 촉진하게 된다(Collins, 2013).

한국의 노숙인은 1990년대 IMF 이후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Kang, 2010),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Kim & Shin, 2016). 전국의 노숙인 수는 공식적으로는 10,645명이나(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확인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숙의 원인으로서는 이혼 및 가족해체, 배우자 사망, 가정 폭력, 질병 및 장애, 알코올 중독, 게임 및 도박 등의 개인적 부적응 또는 사고 영역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54.2%), 경제적 결핍(33.4%)과 사회적 서비스 또는 지지체계의 부족(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숙인이 바라는 복지 욕구는 소득 보조(36.9%), 주거 지원(23.5%), 의료 지원(13%), 고용 지원(11.1%), 심리 지원(5%) 순으로 나타나(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원인에 따른 지원 방향 고려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최근까지 노숙을 위한 자활 프로그램이나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주로 주거문제와 일자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 치중해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외에서는 노숙인들을 주류사회의 입장에서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이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보고되었다(DeForge et al., 2001). 국내에서도 노숙인 문제의 해결을 기초 생존조건의 문제로만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오히려 노숙인을 강한 시민으로 복귀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Kim, 2008), 어린 시절 경험한 외로움이나 학대 경험 등 관계의 회복 및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제안(Hong, 2009)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노숙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배려한 정책의 부족과 그에 따른 심리사회적인 특성 연구 수는 부족하며, 이에 관한 문제 제기(Kim, 2017)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노숙인의 심리적 회복과 관련된 탈 노숙 연구들로 노숙인들이 사회와 자신에 관한 성찰의 기회가 되는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되었고(Lee et al., 2017), 가족 관계의 회복과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통해 탈 노숙을 촉진시키거나 자활 의지를 갖추게 한(Choi, 2018) 긍정적인 보고들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 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노숙이라는 역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관여되는 주요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탐색하여 추후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정책이나 심리적 지원 개입의 기초자료를 갖추는 접근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노숙인의 주요 심리적 특성으로는 삶의 목적과 희망의 상실, 무력감, 절망감, 체념과 비관주의(Patterson & Holden, 2012)가 두드러지고,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이는 인지적 왜곡과 자기효능감에 손상을 주어 우울과 중독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Broadhead-Fearn & White, 2006) 밝혀졌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에 따르면 국내 노숙인 2,032명 중 51.9%가 우울증 상태이고, 28.6%는 조현병, 알코올 중독, 우울증, 조증, 약물 중독 등의 정

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주요 정신건강 관련 요소들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주요 요인으로 고려된다.

또한 노숙인들은 일반적인 대인관계 유지 및 형성 망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숙인들의 소외경험은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로 인해 형성된 부모-자녀 간 애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Leslie 등(2013)은 어린 시절 역경과 방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노숙 간의 연관성을 밝혔는데 노숙인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없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Torchalla et al., 2012). 국내연구에서도 가족과의 단절 등 사회관계망 붕괴가 노숙인의 자립, 자활, 노숙 탈피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와도 관련 있는 중요한 사회적 변인(Jang, 2011)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7)에서 실시한 노숙인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실태조사결과 사회관계망이 매우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 노숙의 주요 원인의 상당 부분이 일차적인 친밀한 대인 간 관계붕괴라는 점을(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고려할 때 이들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표상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대인관계, 나아가 사회에 대한 인식의 주요 근본 요인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요인 중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자기효능감 저하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예측된다. Tollett와 Thomas(1995)의 노숙-절망감 이론에 따르면, 노숙인들은 실패감과 무력감에 의해 자존감 상실과 우울이 발생하고 이후 압도적인 절망 및 희망상실 과

정이 지속되어 부동화 상태가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부동화 상태를 거쳐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을 하게 되며(Cho, 2014), 이는 결국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친밀한 관계의 회피와 사회적 관계 적응의 어려움 등의 불안정한 대인관계 특성을(Lee et al., 2017) 갖게 한다.

노숙 기간과 인구 사회학적 배경 요인도 노숙인 연구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노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Jang, 2014), 자기효능감의 저하, 외적 통제 소재 성향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 노숙 생활에 대한 만성적 적응으로 심리사회적 위험이 커진다(Nam, 2002). 또한 연령과 학력 요인은 취약성과 관련되는데(Ku & Kim, 2012), 노숙 생활 중 피해 경험에서 연령과 학력에 따라 피해 경험이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및 성폭행, 금품갈취, 명의도용, 사기 등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노숙인 대상 연구에서 자기 표상을 비롯한 타인과의 관계 및 자활의 욕구에 대한 표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정적 자기 표상을 제거하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은 노숙인으로 하여금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과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복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Kwak, 2016). 노숙인의 자기 표상은 대체로 추한 모습, 수치스러움, 의미 없는 인생으로 나타났는데(Kang et al., 2012), 노숙인이 지닌 다양한 부정적 정서 상태를 고려할 때 자기 보고식 검사 도구 외에 질적 인터뷰나 심리 내적인 표상을 밝혀주는 도구의 사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

해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양적 연구로는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특성 요인들을 선정하여 관련 특성 변인들이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자기 보고식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우울,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다음 질적 연구로는 첫째, 노숙인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 노숙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요 문제와 현상들을 발견하고, 발견된 현상에서 나타나는 핵심범주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자기 생각과 감정을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노숙인들을 위해 모래놀이 상자평가를 진행, 모래 상자 위에 놓은 작품을 함께 보며 주제를 찾고 설명을 들으며 노숙인의 심리적인 부분을 다른 검사와 교차하여 객관화하도록 하였다. 모래상자 기법은 인간의 무의식을 모래 상자에 표현하여 의식화하도록 돕는다. Turner(2005)는 모래상자 기법이 무의식으로부터 갈등을 끌고와 정신적 내용을 건강하게 재정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치유와 변형을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노숙경험이 있는 아동을 중심으로 모래상자 기법을 사용하여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을 제시하여 정신적 변화과정에 이해를 도움을 준 사례가 있다(Kim & Oh, 2018). 이처럼 모래상자 기법은 보호된 상황에서의 상징체험을 통하여 심리적 상처를 내재하고 있는 노숙인의 내적 표상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돕고 이 과정의 안전한 탐색을 통해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

###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H 대학교와 수원시 다시서기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어깨동무 인문학 과정’에 참여한 노숙인 중 연구에 동의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100%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40대가 34.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으며, 30대가 25.7%, 50대와 60대 이상이 각 17.8%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고졸이 73.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초졸이 11.9% 무학, 중졸, 대졸이 각 5.0%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노숙 기간은 5-6년이 29.7%로 가장 높았으며, 7-8년이 18.8%, 3-4년이 15.8%, 11년 이상이 15.8%, 1-2년이 14.9%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측정 도구

노숙인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edloff가 1977년에 개발한 Center of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을 국내에서 Cho와 Kim이 1993년 표준화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ES-D를 10문항으로 단축한 Andresen(1994)의 CESD-10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2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이 1970년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을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Kim과 Shin이 1978년

표 1. 연구대상인 노숙인의 인구학적 특징  
(N=101)

설문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성별	남	101	100.0
연령	20대	4	4.0
	30대	26	25.7
	40대	35	34.7
	50대	18	17.8
	60대 이상	18	17.8
학력	무학	5	5.0
	초졸	12	11.9
	중졸	5	5.0
	고졸	74	73.3
	대졸	5	5.0
노숙 기간	1-2년	15	14.9
	3-4년	16	15.8
	5-6년	30	29.7
	7-8년	19	18.8
	9-10년	5	5.0
	11년 이상	16	15.8

변안했으며,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을 측정할 수 있다. 각 20문항씩 구성되어 있고 총점은 20-8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특성 불안 척도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9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Maddux와 Mercandante(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Scale: SES)을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Hong(1995)이 번안하였고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17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3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ohen, Kamarck와 Mermelstein(1983)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Perceived Stress Scale: PSS)를 Cohen과 Williamson(1988)이 단축한 PSS-10을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Lee(2005)가 번안하였고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6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와 Larse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Cho와 Cha(1998)가 번안하였고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8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반 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한 질적 연구방법과 모래놀이상자 평가를 진행하였다.

질문 문항은 연구진행자인 발달 및 임상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사가 구성하였고 질문 내용은 자기 경험 및 인식, 부모-자녀 관계 경험, 인문학 학습경험을 통한 삶의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Anderson(2001)이 제시한 노숙 위험요인의 4가지 차원 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 개인적 요인, 가족 배경 요인에 의한 구성으로, 이 중 가정 배경 요인은 부모-자녀 관계 경험에 관한 질문인 성인 애착 인터뷰(AAI; Adult Attachment Interview) 질문(Main et al., 1985) 중 일부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연구진행자가 진행하였으며,

표 2.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반구조화 질문

구분	질문
자기 경험 및 인식	1.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2.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3. 여태까지 살아온 당신의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부모-자녀 관계 경험	1. 어린 시절 당신의 어머니(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형용사나 단어 5개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심하게 내쳐진 것 같은 경우나 부모가 안 돌봐줬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3. 어릴 때 부모가 심하게 겁을 줬던 경험이 있습니까?
인문학 학습경험을 통한 삶의 인식	1. 인문학 공부를 통해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인문학 과정이 당신의 정서적 안정성(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과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데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3. 인문학 과정 이후 당신의 생활 또는 모습을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반 구조화 된 질문 문항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절차

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경기도 소재 H 대학교와 수원시 다시서기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총 2차에 걸친 어깨동무 인문학 과정에 참여한 노숙인 101명 대상으로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주 1회 인문학교육을 받기 전 2월, 5개월이 지난 7월에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연구인 질적 인터뷰와 모래놀이상자 평가에 참여한 대상은 수원 시 다시서기 센터 팀장의 추천을 받고 참여 의사를 밝힌 35명에게 실시되었다. 질적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은 모두 남자이며, 평균연령은 48.5세, 표준편차 12.26이고 연령 범위는 30세부터 77세였다. 평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5명

졸업이 8명(23.5%),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 4명(11.8), 무학과 무응답이 2명(5.9%) 순이었다.

설문도구 연구대상자 101명에게 우울, 불안, 자기효능감, 지각된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척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질적 연구 대상자 35명에게는 반 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형식으로 질적 인터뷰와 진행하였고 모래놀이상자 평가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자기 보고식 척도 작성과 인터뷰는 경기도 소재 H 대학교 강의실 3곳에서 진행되었다. 모래놀이상자 평가는 한신 아동발달상담연구센터 내 모래 놀이 치료실에서 진행되었고 모든 인터뷰와 평가 과정은 녹음되었으며, 연구대상자에게 이에 관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분석

### 설문도구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회수된 설문지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 과정을 거친 후 SPSS 22.0 Korean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첫째, 노숙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을 하므로 측정 도구에 대해 정규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신뢰도 분석을 함으로 측정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상관관계 분석을 함으로 각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다섯째,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여섯째, 설문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그리고 사후분석으로는 Scheffe를 사용하였다.

### 질적 연구방법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질적 인터뷰와 모래놀이상자 평가를 하였다.

질적 인터뷰는 자기 경험 및 인식, 부모-자녀 관계 경험, 인문학 학습경험을 통한 삶의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뷰에 든 시간은 30분에서 90분가량 소요 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관찰자-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공지 후 녹음 및 저장의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특이 사항을 메모하였다.

자료 분석은 Krueger와 Casey(2009)가 제시한 방법을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첫째, 녹음된 파일을 본 연구와 무관한 연구자가 전사하였고, 둘째, 전사된 내용에서 면접에서 나타난 경향성과 특수한 반응 및 정서 등을 고려한 의미

자료를 일차적으로 추출하였다. 셋째, 의미자료와 축어록을 비교하며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주제를 분류하였고, 관련 없는 자료는 재검토하였다. 넷째, 분류된 주제별로 영역과 의미범주를 추출하여 명명화 하였고, 축어록을 살펴 보며 의미범주별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여 분석된 자료가 원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모래놀이는 1929년 영국의 의사인 Lowenfeld에 의해 창시된 아동 심리치료 기법으로 이후 Kalf(1980)가 Lowenfeld의 입장을 바탕으로 융(Jung)의 분석심리학을 접목해 자신만의 모래놀이치료로 발전시켰다. Kalf는 모래놀이치료의 대상을 아동에서 성인으로 확대하여 성인의 치료 및 평가과정에 활용하였다.<sup>1</sup>

모래놀이 평가는 모래리는 감각적 매개물을 통해서 자신의 현 상태나 감정을 좀 더 쉽게 노출하고 내면의 고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억압된 문제를 드러낼 수 있으며(Lee & Kim, 2001), 특히 내면적인 생각과 감정을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노숙인들에게 유용한 비언어적 도구이다(Kim & Oh, 2018).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분석범주로 사용한 방법은 Grubbs(1997)의 체크리스트(The Sandplay Categorical Checklist: SCC)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분석범주로 사용했다. SCC는 완성된 모래상자를 중심으로 상자에 대한 이야기, 전체 구성 양식, 태도, 공간의 배치, 관계성, 주된 심리적 표현, 범주 병피겨 수로 구성된 내용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며, 모래놀이 평가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의 태도와 검사자의 인상 등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모래놀이치료 자격을 갖춘 연구자 중 한 명에 의해 시행되고 평가되었다.

모래놀이 평가는 인문학 과정을 실시하기

전과 후 두 차례 실시하였고, 노숙인들이 모래상자 위에 놓은 작품을 함께 보며 주제를 찾고 설명을 들으며 노숙인의 심리적인 부분을 다른 검사와 교차하여 객관화하도록 하였다.

## 결 과

### 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된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한 결과 노숙인의 우울 평균은 3.72, 불안의 평균은 2.67, 지각된 스트레스의 평균은 2.53,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55, 삶의 만족도 평균은 3.18로 파악이 되었다. 왜도(skewness)는 자료의 분포 모양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댓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Seong et al., 2011). 첨도(Kurtosis)는 절댓값이 7보다 작아야 정상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자료의 분포 모양이 위로 뽕족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들의 왜도, 첨도는 모두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가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노숙인의 우울,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세부적인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노숙인의 우울은 불안과  $r=.418$ , 지각된 스트레스와  $r=.621$ , 자기효능감과  $r=-.855$ , 삶의 만족도와  $r=-.273$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노숙인의 불안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r=.669$ , 자기효능감과  $r=-.778$ , 삶의 만족도와  $r=-.727$ 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노숙인의 지각된 스트레스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r=-.762$ , 삶의 만족도와  $r=-.577$ 의 상관 수치를 나타내주었으며, 노숙인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와  $.582$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가설 다시 말해 노숙인의 우울,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노숙인의 연령, 노숙인의 학력, 노숙 기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숙인의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t$  값  $-2.517$ 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노숙인의 불안도 삶의 만족도에  $t$  값  $-2.090$ 으로 나타나 부적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표 3. 기술 통계분석

요인 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노숙인의 우울	2.40	5.00	3.72	0.63	.38	-.67
노숙인의 불안	1.00	4.00	2.67	0.59	-.61	.40
노숙인의 지각된 스트레스	1.00	3.80	2.53	0.59	-.50	-.12
노숙인의 자기효능감	2.65	5.00	3.55	0.52	.64	-.09
노숙인의 삶의 만족도	1.40	5.00	3.18	0.65	-.09	1.01



표 4. 상관관계 분석

요인 명	평균	표준 편차	우울	불안	스트레스	효능감	만족도
노숙인의 우울	3.72	0.63	1				
노숙인의 불안	2.67	0.59	.418**	1			
노숙인의 지각된 스트레스	2.53	0.59	.621**	.669**	1		
노숙인의 자기효능감	3.55	0.52	-.855**	-.778**	-.762**	1	
노숙인의 삶의 만족도	3.18	0.65	-.273**	-.727**	-.577**	.582**	1

\*\* $p < 0.01$

지각된 스트레스 역시  $t$  값 2.20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노숙인의 연령은  $t$  값 -1.44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노숙인의 학력은  $t$  값 -.0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가 없었으나 노숙 기간은  $t$  값 2.218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회귀 식을 살펴보면  $R = .754$ ,  $R^2 = .568$ , 수정된  $R^2 = .550$ ,  $F = .31.864$ ,  $p =$

.000, Durbin-Watson = 1.735로 나타나 본 회귀 식에 잔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5에서 제시하였다.

질적 분석 결과1(질적 인터뷰)

통합적 분석결과

인터뷰 자료를 주제, 영역, 의미범주 중심의 통합적 분석을 한 결과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노숙의 원인, 노숙인의 우울, 노숙인의

표 5.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베타	t	p
삶의 만족도	(상수)	4.180	1.171		3.591	.001
	노숙인의 우울	-.516	.205	-.485	-2.473	.015*
	노숙인의 불안	-.378	.181	-.345	-2.095	.039*
	노숙인의 지각된 스트레스	-.246	.117	-.222	-2.112	.037*
	노숙인의 자기효능감	.719	.362	.557	1.947	.054
	노숙인의 연령	-.090	.065	-.162	-1.444	.152
	노숙인의 학력	-.006	.073	-.008	-.080	.935
	노숙 기간	.950	.043	.230	2.218	.029*
통계량		$R = .754$ , $R^2 = .568$ , 수정된 $R^2 = .550$ $F = 31.864$ , $p = .000$ , Durbin-Watson = 1.735				

\* $p < 0.05$

자기효능감, 회복을 위한 추구 4개의 주제에 7개 영역, 22개의 의미범주로 도출되었다.

분석결과, 노숙하게 된 원인은 부모의 부재나 가정 내 문제 즉 애착의 문제가 가장 많았고 실직, 부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가 있었다. 노숙인의 우울은 가족들과의 불화, 사회적 관계에서의 적응의 어려움 그로 인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회피로 나타나는 대

인관계 차원과 직장 적응의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차원으로 나눌 수 있었다. 노숙인의 자기효능감은 패배감과 좌절감 그로 인한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낮은 자기효능감과 비록 적은 수이지만 자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목표 의식을 세워나가는 높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노숙인의 회복을 위한 추구에서는 인문학 프로그램이

표 6. 질적 인터뷰 내용 분석 요약

주제	영역	세부영역	의미범주
노숙의 원인	가정문제	부모-자녀 관계 문제	- 부모의 부재 - 양육의 문제 - 학대의 문제
	경제적 문제	사업의 실패 및 가난의 대물림	- 가족의 해체 - 실직 - 부도
노숙인의 우울	대인관계	가족 관계로 인한 우울	- 1, 2차 가족과의 불화
	차원에서의 우울	사회적 관계로 인한 우울	- 적응의 어려움 - 친밀한 관계에서의 회피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우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	- 사업의 실패 - 직장 적응의 실패
노숙인의 자기효능감	낮은 자기효능감	삶에 대한 자각	- 패배감 - 좌절감 - 자살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 무기력한 자아 - 낮은 자기효능감
	높은 자기효능감	삶에 대한 자각	- 목표 의식 - 자립을 향한 열망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 긍정적 사고 - 견고한 자아
인문학 학습경험을 통한 회복을 향한 추구	삶에 대한 태도 변화	변화에 대한 의지 삶의 목표 추구	- 자격증 취득 - 취업 준비 -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목표 추구

계기가 되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의 목표가 생겼으며,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취직과 자격증 취득 등의 목표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6에 제시하였다.

### 주제적 분석결과

#### 노숙의 원인

노숙의 원인은 크게 가정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나누어졌다. 노숙인들은 대부분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및 가출로 상실과 분리를 경험했으며, 학대나 방치로 힘겨운 유년시절을 경험했다. 또한 발달 상태나 정서 상태에 민감하지 않은 파괴적인 양육방식으로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으며, 이러한 요인이 결국 노숙의 원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가난의 대물림 및 사업의 실패로 나타났는데 어린 시절 경제적 빈곤으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노숙을 하게 되었고, 다니던 직장에서의 실직과 부도로 노숙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가정 문제

“난 한 번도 엄마 얼굴을 본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어린 시절 이혼하셨고 바로 고아원에 넣어버리셨거든... 가족간의 따뜻한 정? 난 그런거 몰라요.”(김00, 부모의 부재)

“아빠, 엄마는 나랑 동생들 신경도 안썼어. 그냥 자기 살기 바빴지. 말 그대로 방

치된거지.”(박00, 양육의 문제)

“우리 엄마는 기분파예요.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나쁘면 짜증내고 엄마가 우리를 돌보고 키운다기보다 항상 나랑 어린 동생이 엄마 눈치를 살피요. 난 아직도 엄마만 생각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어요.”(김◇◇, 양육의 문제)

“매일 때리고 죽인다하고 난장판이 되니 거기서 버틸 수 있냐? 도망쳐 나와서 이렇게 된 거지.”(이□□, 학대의 문제)

#### 경제적 문제

“아버지 사업이 망하니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 우리 가족 모두가 길거리도 흩어졌다요.”(박00, 가족의 해체)

“IMF 때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거야. 그 뒤로 이 길로 접어들었지.”(최00, 실직)

“부도가 났다오. 집 팔아먹고 가족 팔아먹고 도망치듯 나온 게 지금까지지”(이00, 부도)

#### 노숙인의 우울

노숙인은 대인관계 차원에서의 우울과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우울로 나눌 수 있다. 대인관계 차원에서는 가족관계로 인한 우울과 사회적 관계로 인한 우울이 있었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우울의 대표적

증상인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직장 적응의 실패)

**대인관계 차원에서의 우울**

“아빠는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뭐 구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실제로 목격했을 때 충격에 우울증이 올 정도로 충격이었죠.”(김△△, 1차 가족과의 불화)

“아버지가 부엌에 가가지고 식칼 가져와가지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하고, 망치 가져와가지고 저 새끼 대가리 깨버린다고 막 그런 거... 아직도 너무 많이 기억에 남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내가 내 가족에게 똑같이 했던 거... 그게 아직도 절 우울하게 해요.”(박00, 1, 2차 가족과의 불화)

“(대인관계로 인해)좀 많이 짜증도 나고, 저 스스로 많이 참고는 있는데 너무 우울하죠.”(조△△, 적응의 어려움)

“쉽게 다가가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정을 주지 말자 했는데도..... 정말 우울해요.”(정00, 친밀한 관계에서의 회피)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우울**

“준비했던 모든 사업이 제로가 돼버리고 공중분해 되고 빨간 딱지 붙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죽을 만치 힘들었죠.”(김◇◇, 사업의 실패)

“취업을 해도 매번 지적당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으니 돈을 벌수가 있나.”(서00,

**노숙인의 자기효능감**

대다수의 노숙인들은 불안정한 자기 지각으로 역기능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자기 지각에서 패배감과 좌절감이 나타났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기력함을 나타내 보였고 이러한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자살 사고가 나타나고 있었다.

소수이지만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들도 있었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립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낮은 자기효능감**

“인생 실패한 사람이죠. 뭐 제 나이 때는 평범하게 가정 이루고 사는데 남들보다 못하게 사는 거죠.”(김◇◇, 패배감)

“이혼하고..... 그니까 전체적인 결혼도 잘못된 거지 이혼을 하면서 내가 인생이 어떻게..... 어차피 내 탓이지만”(이00, 좌절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그때 죽는, 죽어버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김00, 자살사고)

**높은 자기효능감**

“나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존감이 진짜 높아. 난 될 수 있으면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으

려고 해요. 이 상황도 빨리 벗어나야지.”  
(이□□, 견고한 자아)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대한 일반적 의  
미구조

“항상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서 정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다시 일어설 거라 믿어요.”(박00, 긍정적  
사고)

지금까지 살펴본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노숙  
인의 경험 구조를 재구성해보면 그림 1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들의 노숙의 원인은 우선 부모-  
자녀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정  
내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도 연관되어 있  
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들 간 불화가  
나타나거나, 뿔뿔이 흩어져 상실과 분리를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연구  
대상자인 노숙인의 물리적 특성으로 볼 수 있  
다. 어린 시절의 모성 박탈과 보살핌의 질적  
인 왜곡은 애착의 상실이나 외상적 손상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pitz, 1946;  
Goldfarb, 1955).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를 통  
해 형성되는 내적 작동 모델은 애착의 안정적  
인 유지와 변화 및 세대 간 대물림의 핵심적  
인 기제, 더 나아가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의  
기초로 밝혀지고 있다(Bowlby, 1982). 연구 대  
상자들은 이러한 물리적인 특성의 영향으로  
대인관계 차원에서의 우울과 경제적인 차원  
에서의 우울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특성은 연구

인문학교육을 통한 회복을 향한 추구

노숙인의 회복을 위한 추구에서는 인문학  
프로그램이 계기가 되어 자립을 향한 열망과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삶이 목표가 생겼  
으며,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취직과 자격증 취  
득 등의 목표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게 큰 기회더라고요. 여기서 더  
잘못되면 진짜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이게  
많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김■■■, 취업준비)

“목표가 달라졌죠. 생활 앞길이 달라지  
고 또 이거 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 보려  
고 준비하고 있어요.”(박□□, 자격증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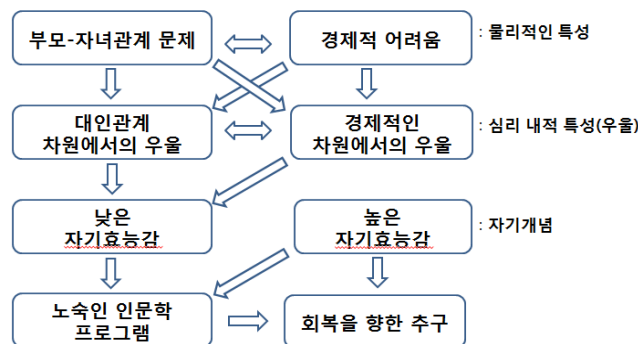


그림 1.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따른 일반적 의미구조

대상자인 노숙인의 심리 내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심리 내적 특성은 자기개념의 영향을 미치는데 패배감, 좌절감 등의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드물지만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연구 대상자들도 있었는데,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연구 대상자들이 노숙인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을 향한 추구로 나아간 것과는 달리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대상들은 회복을 위한 추구로 바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질적 분석 결과2(모래놀이상자 평가)

모래 상자 평가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을 꾸미는 것으로 작품에 대한 분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Kim & Oh, 2018). 본 연구에서는 노숙인들이 꾸민 모래 상자를 하나의 상징이나 사전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노숙인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보와 관계 속에서 이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래놀이평가에서 나타난 주제는 대인관계 문제, 주거문제, 가족 문제의 범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에서는 현재 대인관계의 고립에서 오는 외로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이 주로 표현되었다. 주거 문제에서는 노숙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 집에 대한 욕구로 나타났고, 가족 문제에서는 어릴 적 고향에 대한 향수 및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이 표현한 모래 상자의 전체적인 구성 양식과 공간의 배치는 대체로 빈약하고 공허하며 네 귀퉁이 중 한 곳에 치우쳐 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은 모래상자 내 이미지의 표현이 빈곤하다(Kim, 2003).

이는 현재 노숙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한 상태에 있는 노숙인의 상태를 나타내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모래놀이평가에 임하는 연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태도는 거부적인 태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함부로 놓거나 과도한 피겨를 사용하는 모습과 상대적으로 꾸미는 시간 오래 걸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넷째, 연구대상자들은 모래놀이평가를 통해 노숙 생활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편감 즉 우울, 외로움, 소외,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였다.

다섯째, 연구대상자들이 사용한 소품은 편안하고 고단한 삶을 쉴 수 있는 집과 의자를 많이 선택하였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포함된 특정 기억 물들이 포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7에 제시하였으며, 참가자들의 모래놀이상자 실시 사진은 주제별로 부록에 제시하였다.

#### 대인관계 문제

“혼자 사니까 외롭다. 속에 있는 말 꺼내기 힘들다. 노숙인끼리는 속내 털어놓지 않는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낸다. 술 담배가 친구다.”(조00)

“혼자 술 마시고 외로움이 커서 죽으려고 했다.”(최00)

“이혼한 지 20년 되고 혼자 사니까 외롭다.”(조00)

“불안증세가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생각이 든다.”(정00)

표 7. 모래놀이평가 분석(The Sandplay Categorical Checklist: SCC) 범주

범주	내용
1. 상자에 대한 주제	(대인관계 문제) 외로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쉬고 싶다, 고립, 두려운 사람, 파경, 외로움, 아무도 모르게, 날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떠나는 배(가족들이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한 표현)
	(주거 문제) 나의 집, 내가 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우리 집, 나의 행복한 집, 숲속의 집, 아름다운 정원, 우리 집, 아름다운 나만의 집, 노후 집, 아름다운 나만의 집, 나의 안식처, 나만의 공간, 바다가 보이는 집, 숲속의 집
	(가족 문제) 가족, 어머니, 아버지, 행복한 가정,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 우리 집의 즐거운 식사, 어린 시절, 바닷가 추억, 부부가 잘살고 있는 것, 화목했던 우리 가족, 전원생활 중인 단란한 가정, 보고 싶은 우리 엄마, 불효
2. 태도	모래놀이평가의 거부적인 태도(14), 함부로 놓거나 과도한 피겨의 사용(11), 꾸미는 시간이 오래 걸림(10)
3. 전체 구성 양식	빈약(17), 단순한 구성(11), 분할(7)
4. 공간의 배치	상-좌(8), 상-우(5), 하-좌(9), 하-우(4), 중앙(9)
5. 관계성	현재 대인관계 출현(15), 과거 대인관계 출현(11), 혼돈의 관계(10), 모호한 관계(8), 경직된 배열(5)
6. 주된 심리적 표현	우울한(27), 외로움(22), 소외(21), 회피적인(18), 연결 없는(15), 슬픈(12), 불안(11), 공격적인(10), 두려운(9), 화난(9), 혼란(7)
7. 사용한 Figure	집, 사람(가족), 자연, 식물, 탈것, 구조물, 야생동물, 동물, 가축, 생활용품, 건물

\*( ) 안의 숫자는 해당 변인의 빈도임.

“전에는 일을 많이 하고 맞기도 해서 사람 관계가 어렵고 대인기피증도 있다.”  
(정◇◇)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강아지를 친구삼아 살고 싶다.”(박◇◇)

“혼자 조용히 주변 환경이 시끄럽지 않은 곳에서 살면 좋겠다.”(안OO)

“혼자 있어서 좋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도 좋다.”(송OO)

“아무도 없는 곳에서 쉬고 싶다. 쉼터에서 여러 사람과 자는 것 힘들다.”(정□□)

“혼자 지내다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최 OO)

**주거문제(집에 대한 욕구)**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석00)

“집을 지어서 정원을 꾸미고 의자에 앉아서 생각한다.”(하00)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집만 있으면 사는데 문제없다.”(최00)

“집 뒷마당에 나무를 심고 연못에 고기를 기르며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도 하고 개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정00)

“인문학 끝나면 임대주택을 준다고 해서 목표가 생겼다.”(성00)

“기와집은 여동생 집이고 파란 집은 우리 집이다.”(백00)

“기회가 된다면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김00)

“방은 두 개 이상이고 전원으로 나가서 살고 싶다.”(금00)

“머지않은 미래에 개울에 물이 풍부하고 이런 집에서 살려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3D업종도 피하지 말고 해야 한다.”(김00)

“외딴곳에서 다른 사람 제지 없이 집 짓고 편하게 살고 싶다.”(박00)

“마음속으로 체념하고 살아서 돈 개념

이 없고 집이 없어 아쉽다.”(정00)

“소박하지만 작은 내 집이 생겼다.”(정00)

**가족 문제(향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여동생과 피아노 치며 지낼 때 모습이다.”(박00)

“남매가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넓은 땅에서 살고 싶다. 남매가 보고 싶다.”(박00)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셨다. 7남매 중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았다. 어머니 생각이 난(정▲▲)

“정원에서 식구들이 대화하며 음식을 먹고 있다.”(박△△)

“정원이 있는 우리 가족 집이다. 좀 더 당당해지면 엄마와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가려고 한다.”(김△△)

“아이가 한 명 있는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이다.”(금00)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잘사는 것이고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다.”(구00)

“시끌벅적한 가정집 생각이 난다.”(이00)

“집 앞에 계단이 있고 뒤에는 꽃들이 있다. 집이 언덕 위에 있고 개가 많았



다.”(정△△)

“돌짜가 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  
(김▲▲)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천00)

“다리를 보니 고향 생각이 난다.”(석00)

“고향에 친척들이 살고 있어서 가보고  
싶다.”(백00)

“할아버지와 어릴 때 낚시 갔던 기억이  
난다.”(박▲▲)

“좀 더 당당해지면 엄마와 형제들이 있  
는 고향으로 가려고 한다.”(김◇◇)

### 논 의

본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 접근이 극히 드  
문 연구대상인 노숙인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기도 소재 H 대  
학교와 수원 시 다시서기 센터가 공동으로 주  
최하는 어깨동무 인문학 강좌에 참여한 노숙  
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숙인의 주요 심리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  
에서 노숙인의 불안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  
가 되고, 지각된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우울  
과 불안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우울과 불안, 지각  
된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우울,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선적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요인이 노숙  
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중 대처능력의 저하와  
심리적 손상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밝힌 Collins(201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또한, 우리 사회의 노숙인들도 우울, 불안,  
적대감, 자살 충동 등의 정신질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Yoon et, al., 2013)는 점과도 관련된다. 또한  
노숙인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라는 긍정  
적인 요인이 정신건강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노숙인의 우울,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 자  
기효능감, 노숙인의 연령, 학력, 노숙 기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노  
숙인의 우울과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 노숙  
기간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  
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숙인의 자  
기효능감, 노숙인의 연령, 학력의 경우 삶의  
만족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  
면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 요  
인이 연령이나 학력 등 물리적 특성보다 노숙  
인의 일상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숙인의 삶  
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이 주요우울장애라는 Park과 Park  
(2012)의 결과와도 관련성을 갖는다. 특히 노  
숙 기간의 영향력과 무력감은 노숙 기간이 길  
수록 심리사회적 역기능이 심화되며(Winkleby  
& White, 1992), 노숙의 만성화 단계를 겪으면  
서 비노동의 생존전략을 갖고, 노숙이라는 상  
황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비참  
함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최고의 전략으  
로 회피를 선택한다는 설명(Choi, 2000)을 고려

해볼 때 우울감과 긴 노숙 기간과의 관련성에 대한 누적효과를 예측하게 한다. 불안과 스트레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Dunleavy 등(2012)은 노숙인의 삶이 불확실하고 그날그날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자존감의 상실과 그로 인한 대인관계 위축 등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고 했다.

특히 자기효능감의 경우 노숙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는 노숙인의 자기효능감이 자활서비스 특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자활 성과에 기능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Kim, 2016)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되어 본 연구의 질적 인터뷰 결과에서도 노숙인들의 자기효능감 정도가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점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써 자기효능감이 노숙이라는 환경과는 일관되지 않는 심리적 특성인지 여부와 본 연구대상자들의 특성과 관련된 것인지를 밝히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적 인터뷰 분석결과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노숙의 원인, 노숙인의 우울, 노숙인의 자기효능감, 회복을 위한 추구 총 4개가 주요 주제로 구분되었다. 노숙하게 된 원인으로 부모의 부재나 가정 내 문제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포함되었다. 이는 국외의 연구에서 노숙의 발생이 저렴한 주거지의 감소,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부족, 경제적인 문제 등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한 것임은 분명하나 이 거시적인 요인들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정신적 문제 등의 미시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과(Chekuri et al., 2013)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추후 심리적 개입에 있어서 애착 이론관점에서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표상을 다루어 반성적 사고증진 및 관계회복 도모를 위한 접근 등을 제안한다.

노숙인의 우울은 대인관계 차원과 경제적인 차원으로 나뉘었는데, 대인관계 차원에서는 부모의 부재 및 불화 등 가정 내 문제로 인한 우울과 그로 인한 사회적 관계에서 적응의 어려움과 친밀한 관계에서의 회피를 보였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오는 우울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 직장 적응의 실패로 인해, 도박, 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우울을 호소하였다. Shelton 등(2009)은 노숙인의 우울을 가족에서 일어나는 문제, 개인의 정신적 문제 등의 내생적 원인과 실직, 빈곤과 같은 외부의 상황적 요인에 따른 외생적 원인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 두 유형의 심각한 우울이 구체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자기 보고식 척도에서 밝혀진 우울 요인의 중요성에 더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낮은 자기효능감과 높은 자기효능감 영역으로 나누었고, 각각 삶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었다. 낮은 자기효능감 영역을 살펴보면 패배감과 좌절감과 그로 인한 자살사고가 나타났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 및 무기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되어 Snow와 Anderson(1987) 또한 노숙인들이 안정된 취업, 재정적인 지원, 기타 필요한 자원을 얻는 데 있어 반복되는 실패로 무기력이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이 상실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숙인들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

여한 노숙인 중 일부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기반으로 자립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인터뷰가 시행되기 전 이루어진 약 5개월 동안 이루어진 인문학 과정의 효과성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Nam(2000)의 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활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노숙인의 심리적 요인 중 주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포함시키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회복에 대한 추구에서는 삶에 대한 태도 변화 차원으로 나뉘었고 인문학 프로그램이 계기가 되어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의 목표가 생겼으며,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취직과 자격증 취득 등의 목표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문학교육 과정 중 일부분 포함된 철학, 심리학, 심리치료접근 강좌가 가져다준 결과로도 고려해 볼 수 있기에 자신의 심리적 기능과 타인, 가족과의 관계 표상을 다루는 심리적 접근의 개입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바이다.

모래놀이상자 평가 내용 분석을 보면, 주거 문제 즉 집에 대한 소망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주거는 체류와 활동을 위한 장소이자 내밀한 사생활이 전개되는 사적인 공간(Gye, 2002)이자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 심리적 안정감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노숙인은 홈리스(homeless)라는 단어의 뜻과 같이 일정한 거주지 없이 거리나 다리에서 잠을 자거나 숙식을 해결하는 계층으로 정의된다(Lee, 2008). 즉 노숙인은 주거 생존권의 박탈로 항상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Seok, 2011), 모래놀이상자 평가에서도 집에 대한 소망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고향에 대한 향수, 대인

관계로부터의 고립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났다. 노숙인 발생원인 규명 및 주류 복지체계 연계 방안 연구에 따르면, 94.6%의 노숙인이 가족 관계 및 대인관계로부터 탈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Jung, 2014), 실제 노숙인은 대인관계의 단절로 인한 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모습은 모래놀이상자 평가에서도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노숙인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단순한 주거지원이나 고용지원보다는 심리적 문제 회복과 관계망 확장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일선 서비스 종사자들이 노숙인의 관계망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여 개입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보호 요인의 역할이 가능한 가족, 친지, 동료의 관계망을 강화하고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해 단절된 관계망을 복구할 수 있는 심리적 접근의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질적 분석을 통한 결과들은 일부 자기 보고식 척도사용에서 나온 결과를 동일하게 입증해서 연구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는 양적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심도 있는 개인 내적의 주요 표상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 그러므로 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와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단순히 자기 보고식 연구보다는 질적이고 심리분석 매개적 도구들을 활용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도라는 특정 지역의 노숙인 중 지역 센터의 권유 및 개인의 선택 과정을 거쳐 인문학 교육 과정에 참여한 남자 노숙인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횡단 연구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노숙인 집

단에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노숙인 지역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각지대의 거리 노숙인을 비롯해 남성 노숙인 이외의 여성 노숙인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단기가 아닌 장기간의 중단 연구가 후속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노숙인들의 자기보고식 척도의 측정치가 개인의 학력이나 정신건강 특성에 따라 신뢰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노숙인 대상 연구에서 측정 도구 선택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나아가 노숙인의 연령, 학력분포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반 집단과의 비교연구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 다양한 질적 연구법 설계와 분석법을 사용하여 일반군에 대한 비교연구가 제안된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자료는 노숙인을 위한 특정 인문학 교육 과정 중에 수집된 자료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교육 과정 중 진행된 자신에 대한 성찰 혹은 인식의 변화 등 일정한 심리사회적 개입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질적 분석에서 자기효능감과 회복에 대한 높은 추구는 부분적으로 어깨동무 인문학 교육의 효과성임이 예측 가능하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노숙인의 심리적 안정성과 성공적인 자활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심리적인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성을 밝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노숙인 대상 심리적 요인 탐색이 부족한 실정에서 진행되어 선행연구결과와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노숙인의 주요 심리적 기능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관련성을 양적과 질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질적 면접과 심리 치료적 도구 활용을 통한 주관적인 인식과 표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결과임이 분명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노숙인 관련 기존의 복지 서비스 지원 정책이나 체계구축에 심리적인 개입을 통한 심리적 회복의 중요성을 포함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Anderson, I. (2001). Pathways through homelessness: towards a dynamic analysis. URBAN FRONTIERS PROGRAMME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Basic Books.
- Broadhead-Fearn, D., & White, K. M. (2006). The role of self-efficacy in predicting rule-following behaviors in shelters for homeless youth: A test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6*(3), 307-325. <https://doi.org/10.3200/SOCP.146.3.307-325>
- Chekuri, L., Turturro, C. L., Mittal D., & Sullivan, G. (2013). A comparison of individual level risk factors for homelessness among older and younger adults: Findings in a homeless sample from Little Rock.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1*(3), 112-113. <https://doi.org/10.1016/j.jagp.2012.12.150>
- Cho, K. H. (2014). Development of Sung-Kyung-Shin(誠敬信)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Self-Respect Rehabilitation of the Homeless. *Citizen and Humanities, 27*(1), 43-75.
- Cho, M. H., & Cha, K. H. (1998). An

- inter-country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The 48th Annual Research Report of the Asan Foundation, Jipmundang.
- Cho, M. J., & Kim, K. H.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2(3), 381-399.
- Choi, J. E. (2018). *An analysis of the experience about returning to work of the people getting out of homelessness* [Doctoral dissertation].
- Choi, W. R. (2000). *A study on the homeless careers* [Masters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 Collins, S. B. (2013). From homeless teen to chronically homeless adult: A qualitative study of the impact of childhood events on adults homelessness. *Critical Social Work*, 14(2), 61-81.  
<https://doi.org/10.22329/csw.v14i2.5882>
- DeForge, V., Zehunder, S., Minick, P., & Carmon, M. (2001). Children's perceptions of homelessness. *Pediatric Nursing*, 27(4), 377-383.
- Dunleavy, A., Kennedy, L. A., & Vaandrager, L. (2012). Wellbeing for homeless people: A Salutogenic approach.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9(1), 144-154.  
<https://doi.org/10.1093/heapro/das045>
- Goldfarb, W. (1955). Emotional and intellectual consequences of psychological deprivation in infancy: a reevaluation. *Psychopathology in childhood*. Ed. NewYork, 145(5), 105-119.
- Grubbs, G. (1997). The sandplay categorical checklist for sandplay analysis. Rubedo Publishing.
- Gye, H. Y. (2002). Constitutional science. Park Yeong-sa.
- Hong, B. S. (2009).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elf-support of homeless in the shelter*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Christianity.
- Hong, H. Y. (1995).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Jang, M. C. (2011). Roles and Tasks of the Sub-room. *Counseling Center. Urbanity & Poverty*, 95(1), 8-25.
- Jang, S. J. (2014). The Impacts of Homelessness Exper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Self-efficacy of the Homeless. *Korean Journal of 21st Century Social Welfare*, 11(1), 5-24.  
<https://doi.org/10.17079/jkgn.2018.20.3.177>
- Jung, W. O. (2014). The context of homelessness and linking to mainstream social servic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alff, D. M. (1980). Sandplay Therapy: a psychotherapeutic approach to the psyche. Sicago Press.
- Kang, D. J., Koo, I. H., Kim, C. Y., Hwang, Y. I., Jeong, K. S., Shin, M. H., Kim, S. Y., Kim, E. T., Sun, S. Y., Shin H., Yoon, C. K. & Lee S. J. (2012). Homeless people in Korea: Understanding the lif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Cultural Center.
- Kang, J. H. (2010). A Study on how the Homeless Occurred in Ko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16(2), 113-131.
- Kim, B. A. (2003). Theory and Practice of Sandplay Therapy. Hakjisa.

- Kim, J. T., & Shin, D. K. (1978). A study based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STAI for Korea. *The New Medical Journal*, 21(11), 69-75.
- Kim, K. H., & Oh, J. A. (2018). An Analysis of the Sandtray Therapy process by the Conscientizing Process: Focusing on Homeless Child.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0), 755-764.  
<https://doi.org/10.21742/AJMAHS.2018.10.30>
- Kim, M. S. (2016).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Self-Control and Self-Efficiency on the Self-Activity of the Homeless*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 Kim, M. R. (2008). Stressors and Coping Resources and their Effects on the Depressive Symptoms of the Homeless. *Mental Health & Social Work*, 28(1), 126-151.  
<https://doi.org/10.14367/kjhep.2015.32.4.79>
- Kim, S. Y. (2017). Homeless Risk Factors through the life courses: Focusing on the childhood adverse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8(1), 143-171.  
<https://doi.org/10.16999/kasws.2017.48.1.143>
- Kim, Y. S., & Shin, S. R. (2016). The Crime Prevention Effect of Supportive Housing toward the Homeles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3(3), 153-176.  
<https://doi.org/10.6107/JKHA.2018.29.2.019>
- Krueger, R. A., & Casey, M. A. (2009).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4th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Ku, I. H., & Kim, S. Y. (2012). Entrance into Homelessness in Korea: Cause and Proces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6(4), 264-293.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1.88>
- Kwak, S. M. (2016). *A study on understanding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Homeless Humanities Learning Program*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Lee, H. S. (2008). The Residence of Homeless and Conversion of Housing Law. *Public Land Law Review*, 42(1), 345-364.  
UCI : G704-000326.2008.42.007
- Lee, J. E., (2005). *The Effects of Self-Complexity and Self-Efficacy on Depression and Perceived Stress* [Masters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Gyeonggi.
- Lee, J. S., & Kim, Y. H. (2001). Play therapy conducted to low autonomy with child due to depression. *The Journal of play therapy*, 5(1), 37-55. I410-ECN-0102-2009-370-004993814
- Lee, K. S., Kim, G. S., Kim, Y. H., Kwon, H. S., & Choi, J. H. (2017). A qualitative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homeless. The Korean Society for Development Psychology. A compilation of the annual academic competition papers Society of Developmental Psychology.
- Leslie, E. R., Natalie, M., Tracie, O, A., Laurence, Y, K., Jono Distasio., & Jitender, Sareen. (2013).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Homelessness and the Impact of Axis I and II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December 103(2), 275-281.  
<https://doi.org/10.2105/AJPH.2013.301323>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 66-104.  
<https://doi.org/10.2307/3333827>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Results of the 2016 survey on homeless people and future measur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Information on welfare programs for the homeless and others in 20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m, K. C. (2000). *The Effect of the psychosocial trauma according to the homeless duration on the exit from the homeless shelter*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Nam, K. C. (2002). Life Conditions and Social Needs of the Street Homeless People. *Dongduk journal of life science studies*, 7(1), 213-224.
- Park, Y. C., & Park, S. C. (2012). Why do suicide and depression occur?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5(4), 329-334.  
<https://doi.org/10.5124/jkma.2012.55.4.329>
- Patterson, A. A., & Holden, R. R. (2012). Psychache and suicide ideation among men who are homeless: a test of shneidmans model.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42(2), 147-156.  
<https://doi.org/10.1111/j.1943-278X.2011.00078.x>
- Seok, H. J. (201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eaning of dwelling of the homeless*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Seong, D. K., Lee, S. C., Jang, C. Y., & Choi, I. K. (2011). Application of SPSS Easy-to-understand statistical techniques. Daemyung.
- Shelton, K. H., Taylor, P. J., Bonner, A., & Van den Bree (2009). Risk Factors for Homelessness: Evidence From a Population-Based Study. *Psychiatric services*. 60(4), 465-472.  
<https://doi.org/10.1176/appi.ps.60.4.465>
- Snow, D. A., & Anderson, L. (1987). Identity Work among the Homeless: The Verbal Construction and Avowal of Personal Identi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6), 1336-1371.  
<https://doi.org/10.1086/228668>
- Spitz R. (1946). Anaclitic Depression: An Inquiry into the Genesis of Psychiatric Conditions in Early Childhood, II.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1), 313-342.  
<https://doi.org/10.1080/00797308.1946.11823551>
- Tollett., H., & Thomas, P. (1995). A theory-based nursing intervention to instill hope in homeless veterans. *Advanced Nursing Science*, 18(2), 76-90.  
<https://doi.org/10.1097/00012272-199512000-00009>
- Turner, B. A. (2005). *The handbook of sandplay therapy*. Cloverdale, CA: Temenos press.
- Torchalla, I., Strehlau, V., Li, K., Schuetc, C., & Krausz, M.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subtypes and current suicide risk among homeless men and women. *Child Maltreatment*, 17(2), 132-143.  
<https://doi.org/10.1177/1077559512439350>
- Yoon, H. S., Han, Y. R., & Song, M. S. (2013).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Health Behaviors, Health Status, and Utilization Patterns of Health Care Institutions for homeless shelter residents: Comparison of Younger and Older male resi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3), 578-591.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3.578>
- Winkleby, M. A., & White, R. (1992). Homeless Adults Without Apparent Medical and Psychiatric Impairment: Onset of Morbidity Over Time.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43(10), 1017-1023.  
<https://doi.org/10.1176/ps.43.10.1017>
- 1차원고접수 : 2020. 03. 16.  
2차원고접수 : 2020. 05. 29.  
3차원고접수 : 2020. 09. 07.  
최종게재결정 : 2020. 12. 23.



## A Study on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Homeless People

Yong-hun Kim

Kyung-Sook Lee

Gea-soon Kim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Counseling of  
Hanshin University

Hanshin Child Development and  
Counseling Research Center

This study examine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homeless peopl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ho were participating in the Eokkaedongmu Humanities Program cohosted by H University in Gyeonggi Province and Dasiseogi Center of Suwon Cit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depression of homeless people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nxiety, perceived stress, and self-efficacy, and anxiety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erceived stress,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lif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also found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self-efficacy and between satisfaction with life and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life; 2) depression, anxiety, perceived stress, and period on the stree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life; 3) major reasons of homelessness included absence of parents, domestic problems, and economic hardship. Depression felt by homeless people was categorized into family relationship, social relationship, and economic hardship depending on reasons. They felt a sense of failure and frustration in terms of self-perception, and helplessness and a low self-efficacy regarding their ability. In term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y had troubles with family members, felt difficulties in adapting to social relations, and evaded intimate relations; 4) they mostly expressed desire for houses, homesickness for hometown, and a sense of isol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findings not only stress significance of psychosocial factors of homeless people about whom few psychological studies were conducted in Korea but also can contribute to understanding homeless people accurately and developing directions in appropriate interven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homeless people, psychosocial factor, qualitative interview, sandbox assessment

부록 모래놀이상자 평가 실시 사진(주제: 집에 대한 소망)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석00)



“집을 지어서 정원을 꾸미고 의자에 앉아서 생각한다.”(하00)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집만 있으면 사는데 문제없다.”(최00)



“집 뒷마당에 나무를 심고 연못에 고기를 기르며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도 하고 개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정00)



“인문학 끝나면 임대주택을 준다고 해서 목표가 생겼다.”(성00)



“기와집은 여동생 집이고 파란집은 우리집이다.”(백00)

(계속)



“기회가 된다면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김00)



“방은 두 개 이상이고 전원으로 나가서 살고 싶다.”(금00)



“멀지 않은 미래에 개울에 물이 풍부하고 이런 집에서 살려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3D업종도 피하지 말고 해야 한다.”(김00)



“외딴 곳에서 다른 사람 제지 없이 집짓고 편하게 살고 싶다.”(박00)



“마음속으로 체념하고 살아서 돈 개념이 없고 집이 없어 아쉽다.”(정00)



“소박하지만 작은 내 집이 생겼다.”(정00)

부록 모래놀이상자 평가 실시 사진(주제: 가족문제-향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여동생과 피아노 치며 지낼 때 모습입니다.”(박00)



“남매가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넓은 땅에서 살고 싶다. 남매가 보고 싶다.”(박ㄱㄱ)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셨다. 7남매 중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았다. 어머니 생각이 난다.”(정▲▲)



“정원에서 식구들이 대화하며 음식을 먹고 있다.”(박△△)



“정원이 있는 우리 가족 집이다. 좀 더 당당해지면 엄마와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가려고 한다.”(김△△)



“아이가 한 명 있는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이다.”(금ㄱㄱ)

(계속 1)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잘사는 것이고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다.”(구00)



“시끌벅적한 가정집 생각이 난다.”(이00)



“집 앞에 계단이 있고 뒤에는 꽃들이 있다. 집이 언덕 위에 있고 개가 많았다.”(정△△)



“둘째가 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  
(김▲▲)



“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천00)



“다리를 보니 고향생각이 난다.”(석00)





“고향에 친척들이 살고 있어서  
가보고 싶다.”(백00)



“할아버지와 어릴 때  
뉘시 갔던 기억이 난다.”(박▲▲)



“좀 더 당당해지면 엄마와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가려고 한다.”(김◇◇)

부록 모래놀이상자 평가 실시 사진(주제: 대인관계에서의 고립)



“혼자 사니까 외롭다. 속에 있는 말 꺼내기 힘들다.  
노숙인끼리는 속내 털어놓지 않는다.  
말 한마디 안하고 지낸다. 술 담배가 친구다.”(조00)



“혼자 술 마시고 외로움이 커서  
죽으려고 했다.”(최00)



“이혼한지 20년 되고 혼자 사니까 외롭다.”(조00)



“불안증세가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생각이 든다.”(정00)



“전에는 일을 많이 하고 맞기도 해서  
사람관계가 어렵고 대인기피증도 있다.”(정00)



“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강아지를 친구삼아 살고 싶다.”(박00)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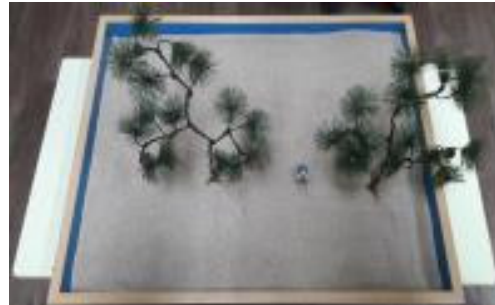
“혼자 조용히 주변 환경이 시끄럽지 않은 곳에서 살면 좋겠다.”(안OO)



“혼자 있어서 좋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도 좋다.”(송OO)



“아무도 없는 곳에서 쉬고 싶다.  
컴퓨터에서 여러 사람과 자는 것 힘들다.”(정OO)



“혼자지내다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최 OO)